

《書 評》

中國圖書分類法(新訂二版)

賴永祥 編訂, 臺北, 中國圖書館學會·國立臺灣大學文學院圖書館學科, 民國 57(1968) 486p. 21cm, (現代圖書館學叢書 Vol. 1)

沈 喞 俊

〈中央大 圖書館學科 助教授〉

1.

初版이 1964년에 나오고 再版이 1968년에 나온 책을 이제 새삼스럽게 紹介하는 것은 晚時의 비웃음을 免할 筈 없으나, 그러나 中國에서는 이 책이 널리 알려지고 쓰여지는 것만은 事實이어서 韓國에 한번쯤은 훗더라 도 紹介되어 無妨할 것으로 생각된다.

2.

中國의 圖書分類는 相當히 오래전부터 있어 온 七略別錄·七略·漢書藝文志·中經簿·四部目錄·四部總目 등 너무나 잘 알려졌으나 Dewey의 十進分類法이 傳來되면서부터 中國에서도 圖書分類에 있어 많은 變化를 가져 왔다. 그 一例가 劉國鈞 씨의 “中國圖書分類法”이다. 그의 展開를 보면 類는 다음과 같다.

〈表 1〉

- 0. 總類 1. 哲學 2. 宗教 3. 自然科學
- 4. 應用科學 5. 社會科學 6—7. 史地
- 8. 語文 9. 美術

이것은 Dewey 씨의 十進分類法과 項目은 같으나 그 順序를 달리하고 있다. 即, Dewey 씨는 自然科學과 應用科學을 言語 다음에 놓는데 비해 劉씨는 이를 宗教에 接近시켰고, 社會科學 다음에 史地類, 語文類를 놓아 全體의 體系를 思想의 뒷받침아래 純粹·應用 등 自然科學·社會科學·人文科學順으로 세웠다. 그의 理論은 Dewey 씨의 散慢한 體系보다 一理를 보이고 있다. 恒常 모든 學問은 哲學의 뒷받침을 얻은 然後에 部門別로 區分 됨은 勿論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分類法에서 ‘自然’과 ‘社會’를 結付시키기보다는 人文인 語文·美術을 앞세우고 社會科學類와 史地類를 뒤에 놓았더라면 더욱 理想的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모든 學問을 綜合해서 體系를 이룰 수 있는 것이 「史地」 部門이기 때문이다. 그런 點에서는 오히려 우리 나라 K.D.C. 보다는 덜 考慮된 것 같다. 어떻게 劉國鈞 씨는 前揭書에서 그의 나름대로 體系를 세웠는데 그가 展開한 綱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

總類	特 藏	000	目 錄 學	010	圖 書 館 學	020	國 學	030	類 書 : 百 科 全 書	040	普 通 雜 誌	050	普 通 會 社 出 版 物	060	普 通 論 叢	070	普 通 叢 書	080	群 經	090	哲 學 類	100	總 論	110	思 想	120	中 國 哲 學	130	東 方 哲 學	140	西 洋 哲 學	150	論 理 學	160	形 而 上 學 : 玄 學	170	心 理 學	180	美 學	190	倫 理 學
宗 教 類	200	總 論	210	比 較 宗 教 學	220	佛 教	230	道 教	240	基 督 教	250	回 教	260	猶 太 教	270	群 小 宗 教	280	神 話	290	術 數 : 迷 信	自 然 科 學 類	300	總 論	310	數 學	320	天 文	330	物 理	340	化 學	350	地 質	360	生 物 : 博 物	370	植 物	380	動 物	390	人 類 學
應 用 科 學 類	400	總 論	410	醫 藥	420	家 事	430	農 業	440	工 程	450	鑛 冶	460	應 用 化 學 ; 化 學 工 藝	470	製 造	480	商 業 : 各 種 營 業	490	商 學 : 經 營 學	社 會 科 學 類	500	總 論	510	統 計	520	教 育	530	禮 俗	540	社 會	550	經 濟	560	財 政	570	政 治	580	法 律	590	軍 事
史 地 類	600	史 地 總 論	中國 :	600	通 史	620	斷 代 史	630	文 化 史	640	外 交 史	650	史 料	660	地 理	670	方 志	680	類 志	690	遊 記	世 界 :	710	世 界 史 地	720	海 洋	730	東 洋 : 亞 洲	740	西 洋 : 歐 洲	750	美 洲	760	非 洲	770	澳 洲 及 其 他 各 地	780	傳 記	790	古 物 : 考 古	
語 文 類	800	語 言	810	文 學	820	中 國 文 學	830	總 集	840	別 集	850	特 種 文 學	美 術 類	900	總 論	910	音 樂	920	建 築	930	雕 塑	940	書 畫	950	攝 影																

860 東洋文學	960 圖案：裝飾
870 西洋文學	970 技藝
880 西方諸小國文學	980 戲劇
890 新聞學	990 遊藝：娛樂：休閒

于先 總類의 境遇, '國學'을 獨立시킨 것이다. 中國의 言語·歷史 또는 文化·風習등을 研究하는 學問중에서도 總類에 該當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獨立시킨 것은 어느 意味에선 世界的인 分類가 못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自體內的 讀者를 考慮할 때 中國 分類法에 있어 中國學을 獨立시켜 取扱했다는 것은 政治的이나 民族的이 아니라 獨創을 強調하는 一面으로도 解釋된다. 그런 意味에서는 오히려 좋은 樣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哲學의 境遇만 보더라도 Dewey 씨는 西洋哲學을 置重하였으나 劉씨는 東洋哲學을 置重하였다. 그 중에서도 '中國哲學'을 獨立시킨 것이다. D.D.C의 形而上學的 理論展開에서 現代哲學으로 내려오는 一面, 時代도 考慮한 體系에 대하여, 劉씨는 于先 中國哲學을 東洋哲學중에서 分立시켜 앞 세웠고, 西洋哲學을 東洋哲學 뒤에 놓은 것이다. 國粹主義의 立場을 取할 程度로 中國을 誇示한 印象을 주고 있다.

宗教類 亦是 그러하다. D.D.C가 너무 基督教一色만을 羅列한데 비해, 劉씨는 이를 完全히 脫皮하여 基督教을 한 項目에만 局限해 주고, 그 나머지는 佛教·道教·回教·猶太教·群小宗教 등으로 細分하고 있다. 말하자면 均衡을 잡으려 했으며 그 중에서도 東洋文化에 影響을 가장 많이 미친 佛教를 앞 세운 것은 東洋의 立場에서의 좋은 展開로 斟酌된다.

그밖에 顯著한 差를 보인 것은 史地類다. D.D.C에서는 유럽史로부터 시작하여 Oceania에서 끝을 맺는데 비해, 劉氏は 이를 中國과 世界를 對象으로 兩分하고 있다. 于先 600에서는 中國의 歷史와 地理에 關한 總論을 두고 '中國'에 600대를 주어서 通史부터 遊記에 이르기까지 中國것만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亞細亞史속에 中國을 두어 細分한 D.D.C와는 判異하다. 그리고 劉씨는 世界史속에서 中國을 본 것이 아니라, 中國을 찾는 讀者가 大部分이고 中國에 所藏되고 있는 資料의 擧皆가 中國것이라는 點에 着眼하여 中國項目을 獨立시키고 있다. 그리고 700대에 中國 歷史는 D.D.C 800대와 別差 없다.

다음은 語文類에 關한 것이다. D.D.C에서는 語學과 文學을 分立시킨데 比해서 劉씨는 語學에 單一 項目을 주었을뿐 모두 文學속에 包含시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文學속에서도 中國文學을 獨立시켰고, 音樂과 美術은 따로 類를 주었다. 따라서 語學은 尤야무야한데 比해서 文學은 크로즈 얼 되고 있다.

이와 같이 劉씨는 같은 十進法을 採用하면서도 中國의 固有性을 살리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劉씨의 論은 그 體系에 있어 確實히 中國乃至 東洋을 置重한 功績이 자못 컸으나 그러나 劉씨의 中國圖書分類法은 너무나 簡略하다. 이러한 缺陷을 補充하기 爲해 나온 것이 賴永祥의 '中國圖書分類法'이다.

3.

賴씨는 國立臺灣大學 圖書館學科 主任教授로 있으면서 '中華民國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標準之擬訂' '館際互借之準則' '臺灣省通志稿' '北臺古輿圖集' '臺灣文獻學要' 등 書誌學과 圖書館組織 및 運營에 關한 많은 著述이 있다.

氏が 民國 53년에 初版을 내고 57년에 다시금 新訂 2版을 내어 世上에 알린 '中國圖書分類法'은 바로 劉씨의 體系를 그대로 본따 類綱까지를 고스란히 옮긴 것이다. 다만 劉씨의 것보다 目·分厘毛의 項目을 두어 類綱을 더욱 展開시킨 것이 366面の 初版이었고, 보다 細分한 것이 이번 나온 482面이나 되는 新訂 2版이다. 그가 밝힌 몇가지의 圖書分類에 對한 特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學術의 性質을 주로 보아서 分類하고, 體制·地域·時代·語文·用途·板本등도 아울러 考慮」한 點이다.

勿論 圖書의 內容을 檢討해서 分類한다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지만, 體制·地域·時代·語文·用途·板本까지를 아울러 檢討해서 分類表를 마련한 것은 드문 일이다. 아마도 이것은 原則的으로 內容을 보고 分類를 하되, 그 資料가 지닌 體制·地域·時代도 考慮하여 細分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그의 分類法은 東洋資料에 대해 細心한 注意를 기울인 것으로 보아 옳을 것이다.

둘째, 그는 「圖書의 分類記號로 Arabia 數字를 採用해서 層累原則으로 編成」하고 있다. 이와 같은 組織은 어느 나라를 莫論하고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方案은 決코 아니다. 다만 그가 밝힌 記號組織이 劉씨의 것처럼 小圖書館만을 對象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그 規模에 따라 大小圖書館들이 알맞게 採擇하면 簡陋 繁雜은 免케 되어 있다. 따라서 各層의 圖書館이 널리 利用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展開와 記憶을 便케하기 爲하여 共通部分에는 一般形式區分·時代區分·地理區分·言語區分을 비롯하여 機關出版物排列, 各國의 史地區分·宗教宗派區分 등 助記性에 대한 附表와 挿表를 마련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一般·時代·地理·言語 등 區分도 다른 나라와 若干의 差가 있고, 더욱이 機關出版物排列·各國의 史地·宗教宗派 등 區分이 마련된 것은 特異하다.

a. 一般形式區分：中國圖書分類法을 D.D.C와 對照해 보면 다음과 같은 差가 있다.

〈表 3〉

D.D.C.	中國圖書分類法
0.1 哲學·理論·方法論	理論·方法
0.2 概略·便覽·大要	綱要·表解
0.3 辭典·百科事典	教育·研究
0.4 隨筆·演說·講義	辭典·類書
0.5 定期刊行物	期刊·雜誌
0.6 協會·團體會報	會社·機關·團體
0.7 研究·教諭	雜文·講演集
0.8 全集	叢書
0.9 歷史·一般的地方取扱	歷史·現狀

賴씨는 D.D.C.에서 03 辭典·百科事典을 04로, 04 隨筆·演說·講義를 07로, 07의 研究·教諭를 03으로 각각 바꾸었다. 賴씨가 이와 같이 고친 것은 理論을 可及의 한 곳에 모으고 各種 期刊物·團體를 다음에 놓은 뒤, 雜文이나 叢書類와 包括의인 歷史의 現狀을 뒤에 놓아 그의 나름대로 體系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一般形式區分을 各 主題에 붙일 때는 原則的으로 0을 붙이고, 붙여질 곳에 이미 0이 있을 때는 붙일 0하나를 더 붙일 必要가 없고, 0을 同伴한 記號가 特定主題의 記號로서 使用되고 있을 경우는 0의 除去 없이 0을 덧붙인다는 0加除法은 Dewey씨의 論 그대로를 踏襲하고 있다.

넷째, 特殊形式區分：經書의 경우 賴씨는 이를 다음과 같이 形式區分하고 있다.

- | | | |
|--------|---------------|---------|
| 1. 本文 | 2. 注疏箋釋(附本文) | 6. 文字意義 |
| 13. 石經 | 3. 注疏箋釋(不附本文) | 7. 研究論評 |
| 15. 選本 | 4. 名物典制 | 8. 分篇 |
| 19. 佚本 | 5. 表譜圖說 | 9. 緯書 |

亦是 一般形式區分과 같이 0을 加 또는 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形式區分과 같이 0이 둘 있을 경우 하나만을 없애는 경우와는 달리, 表에 記號가 마련 되어 있지 않는 限 0을 더 붙일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씨는 이 밖에 中國哲學書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 | | | |
|---------|------------|---------|
| 1. 注釋 | 5. 分篇 | 8. 全書 |
| 2. 節本 | 6. 僞作 | 9. 特殊研究 |
| 4. 單行各書 | 7. 總論 및 批評 | |

이와 같은 것은 모두 中國書의 特殊性에 비추어 마련된 것이며 韓國의 群經에서도 適用될 事項들이 다. 그리고 또한 宗教書에 대해서도

- | | | |
|------------|---------------|----------|
| 1. 教義 | 4. 俄注 | 7. 教會·教職 |
| 2. 宗典 및 其釋 | 5. 語錄·信仰錄·說教集 | 8. 教化流行史 |
| 3. 規律 | 6. 佈教 | 9. 傳記 |

등으로 다시 區分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佛教書의

多樣性에 비추어 마련된 表일 것이다. 그밖에도 農業書에 대하여도 複分하고 있는데,

- | | | |
|----------|------------|-------------|
| 1. 分佈·起源 | 4. 遺傳 | 7. 環境 및 栽培法 |
| 2. 形態 | 5. 分類 및 品種 | 8. 病虫害 |
| 3. 生理 | 6. 生産 및 用途 | 9. 收穫과 調整 |

이것은 作物의 品種이며, 栽培·病虫害에 관한 細分이다.

學校出版物에 대한 特殊한 區分 亦是 資料의 性質을 보아 區分한 것이 다음에 보이고 있다.

- 0 總論·校史·評論 등 行政出版物
- 1. 章程·規則·概況 등
- 2. 名 錄
- 21. 教職員名簿
- 25. 學生名簿
- 26. 在學生名簿
- 27. 卒業生名簿
- 3. 校務報告
- 4. 各種統計·學術出版物
- 5. 期 刊
- 6. 叢刊·叢書
- 7. 專 門 書
- 8. 學生團體 및 出版物
- 9. 雜 著

이 밖에도 各鐵路에 대한 區分表 등 많은 表가 마련 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資料의 性質로 보아 特殊部門에서 專門的으로 다루어질 性質의 것이어서 마땅히 細分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러한 特殊表가 많이 마련된 것은 確實히 氏의 分類表의 長點의 하나라 하겠다.

다섯째, 時代區分：賴씨는 附表에서 中國, 西洋, 日本 및 韓國을 各各 獨立시켜 時代를 區分하고 있다. 특히 中國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先 秦 | 4. 唐 및 五代 | 7. 清 |
| 2. 漢 및 三國 | 5. 宋 및 遼金元 | 8. 現代·民國 |
| 3. 晉 및 南北朝 | 6. 明 | |

이와 같이 8大分을 해 놓고 다시금 各 時代속에서도 그 時期를 細分하여 再三 記號를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氏가 區分한 記號를 보면 甚至於 3單位(例：唐 穆宗時 朋黨에 관한 책이면 624.17)까지를 詳細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西洋의 時代區分은 簡略하기 그지 없다. 即,

- | | |
|------------------|-------------------|
| 1. 古代 및 希臘 | 35. 11~12世紀 |
| 2. 羅 馬 | 36. 十字軍 1096—1270 |
| 3. 中世紀(476—1453) | 37. 13世紀 |
| 33. 封建時期(800—) | 38. 14世紀 |
| 34. 10世紀 | 39. 文藝復興期 |

- 4. 近代(1453—) 82. 歐戰
- 5. 17世紀 83. 1918年以後
- 6. 18世紀 84. 第2次大戰
- 7. 19世紀 85. 1954年以後
- 8. 20世紀

그뿐만 아니라 韓國의 경우에는 上古時代를 區分하여 太古·上古·中古로 細分한 記號를 주고 있다. 特別히 이와 같이 細分했으면서도 下古의 識別이 高麗時代로 넘어 간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釋然치 않다. 아마도 K.D.C를 模倣하였다면 33에 준 三國時代가 下古여야 할 것이나 같은 3單位記號를 주었으니 이 亦是 釋然치 않다. 어떻게 氏의 表는 中國資料를 中心으로 中國을 내세운 表인 印象을 주고 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大多數의 讀者와 資料가 中國것이라는 데서 既述한 바와 같이 當然한 歸結일런지도 모른다.

여섯째, 地理區分: 主題의 다음에 必要에 따라 붙이는 地理區分중 中國區分은 亞細亞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獨立시키고 있다. 卽 世界의 地理를 世界·中國·亞洲·歐洲·美洲·非洲·oceania등 으로 七區分하여 놓고 世界 다음에 中國을 놓았으며 이를 細分하여 縣·省

表등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各國의 것은 「史地複分表」란 欄을 마련하고, 總論에 0, 辭典에 04, 期刊에 05, 叢書에 08을 各各 形式區分한 다음 歷史와 地理를 兩分하여 細分하고 있다.

歷史 1	通 史	地理 6	總 志
14	雜 史	7	地 方 志
18	評 論	8	類 志
2	斷 代 史	82	水
29	方 隅 史	83	山
39	文 化 史	84	名 勝 古 蹟
39	民 族 史	85	人 文 地 理
4	外 交 史	87	人 物
5	史 料	88	文 獻
		89	雜 記
		9	遊 記 : 指 南

따라서 東洋史地 730과 西洋史地 740을 除外하고 各國史地는 위 表에 準해서 細分하고 있다. 卽 日本通史는 731.1, 韓國地理는 732.6, 獨逸遊記는 743.9인 것이다. 말하자면 7은 省略한 國家記號를 共通적으로 使用한 것이다. 各國을 細分한 地理區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 :	韓國 :	美國 :	캐나다 :
1. 東北地方	1. 咸鏡道	1. New England & middle Atlantic States	1. British Columbia
2. 關東地方	2. 平安道	2. South Atlantic States	2. Northern territories and prairie provinces
3. 中部地方	3. 黃海道	3. South Central States	3. Ontario
4. 中部西南	4. 江原道	4. Noith Central States	4. Quebec
5. 近畿地方	5. 京畿道	5. West-North	5. New Brunswich
6. 中國地方	6. 서 울	6. Mountains	6. Nova Scotia
7. 四國地方	7. 忠清道	7. Pacific Coast	7. Prince Edward Island
8. 九州地方	8. 慶尙道	8. Alaska	8. Newfoundland, Saint Pierre and Miquelon
9. 北 海 道	9. 全羅道	9. Hawaii	9. Labrador territory

萬一 東京都志를 分類하려면 731.7 日本地方志에다가 關東地方(2)에 東京(6)을 細分하여 731.726으로 하고, 江華道志를 分類하려면 732.7에다가 京畿道 5에 江華地方 6을 加하여 732.756으로 하고, Alentian Is. 志를 分類하려면 美國地方 752.7에다가 alaska의 8과 Alentian Is. 9를 加하여 752.789가 되는 것이며, Canada 亦是 이와 같은 要領으로 區分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區分은 當該國의 地域을 보다 細分해 본 것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細分도 大圖書館에서는 必要한 것으로 看做된다.

일곱째, 言語共通區分: 言語共通區分은 言語에 있어서 各國語에 共通적으로 適用되는 區分이다. 賴씨는 이를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 1. 訓 話 5. 方 言
- 2. 字 書 6. 文 法
- 3. 字 典 7. 修詞·作成

- 4. 音 韻 8. 讀 本
- 9. 邊疆語文

그리고 國語區分에서는

- 3. 東方語 5. 놀르만語系
- 1. 日本語 1. 英語
- 2. 韓國語 2. 獨語
- 4. 西方語(印歐語系) 6. 스페인어系
- 1. 希臘語 7. 其他印歐語
- 2. 羅典語 8. 美非澳洲語 및 其他
- 3. 近代歐語 9. 人僞語
- 5. 佛語

로 區分하고 있다. 日本方言하면 이것은 803.15로 結合시키고, 英國方言은 804.15식으로 展開시켜 國語區分과 言語共通區分을 配合하여 記號를 組織하고 있다.

여덟째, 文學形式區分: 文學作品·文學理論·文學批評·文學史는 모두 800에 넣고 있으나 그 形式으로

는 다른 規定이 없는 限 于先 國家別로 區分하고 다음과 같이 形式區分을 한 뒤에 時代區分을 하고 있다.

- .2 文藝批評 .51 詩 .6 雜著
- .3 總集 .55 戲曲 .8 地方文藝
- .4 別集 .57 小說 .9 文學史
- .5 特種文藝 .58 民間文學
- .59 兒童文學

아홉째. 機關出版物 排列: 그리고 또하나 特色은 各種機關에서 나오는 出版物의 處理다. 씨는 모든 機關의 出版物을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 1. 概況要覽 4. 事業 7. 叢刊
- 2. 規程 5. 報告 8. 期刊
- 3. 組織 6. 專刊 9. 雜件

이것은 主로 學術團體·圖書館·博物館 등에서 出版되는 出版物을 集中시키는 方法으로 널리 應用되고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열째, 中國作家의 時代區分: 씨는 「中國作家時代區分例」라는 項目을 따로 두어 中國의 歷代 思想家 또는 作

家를 網羅하여 時代別로 作家名單을 羅列하고 있는데, 이것은 中國文學의 別集部類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씨는 이밖에도 「簡則」에 11項目, 「使用法」에서 10項目, 排列法에서 7項目에 거친 說明을 하고 있으나 紙面上 이의 紹介를 省略한다.

4.

以上은 賴씨가 叙述한 凡例중 1부터 5까지 다섯項目에 걸친 記事를 解釋함에 不遇하지만, 이를 一瞥하던 大略 다음과 같은 特徵이 賴씨의 「中國圖書分類法」에서 發見된다. 첫째, 賴씨의 이 龐大한 著述은 主로 劉國鈞씨의 「中國圖書分類法」類綱을 그대로 옮겨 細部를 展開하고 있는 點. 둘째, 賴씨는 D.D.C, K.D.C, N.D.C등도 參考는 했으나 決코 模倣을 한 것은 아니고, 各項目에 걸쳐 中國資料와 中國人說者를 重視하며 中國的인 「圖書分類法」을 만드는데 큰 意義가 있는 點. 셋째, 賴씨는 對外的 分類法보다 많은 特殊形式을 마련하여 中國資料의 閱覽을 便케 한 點 등은 씨의 좋은 着想과 그 實現으로 看做된다.

이 달의 도서관 역사

4 월

- 사립 인천문고 개설 (1911)
- 경성도서관 야간열람을 실시 (1922)
- 경성도서관 개관 (1922)
- 개성, 배천, 영월, 박천 초산에 간이도서관 개관(1924)
- 조선총독부 도서관 개설 (1925)
- 인문과학도서관이 宣農壇에 설치 (1925)
- 경성도서관 「경성부영도서관」으로 발족 (1926)
-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 개관 (1926)
- 도서관연구회 설립 (1928)
- 동래도서관 폐관 (1937)
- 개성부립도서관이 개성부 태평가 99번지로 이관 (1947)
- 고재창 편. 한은도서관법출판 (1953)
- ICA원조와 George Peabody 사범대학 교수단의 협조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도서관학과 및 동 대학원에 석사과정인 도서관학과가 설립 또한 1년과정과 사서 교과과정의 고급사서훈련을 위한 한국도서관학당 School of Library Science)도 병설 (1957)
- 진주고등학교 도서관 설립 (1957)
- 농업협동중앙회 도서관 설립 (1957)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도서관 설립(1957)
- 경기대학 도서관 설립 (1958)
- 인천중공업 인천공장 도서관 설립 (1958)
- 이춘희 편. 동서저자기호표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출판 (1960)
- 부산여자고등학교 도서관 설립 (1960)
-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의 도서관 1964」출판 (1965)
- 정필모, 이춘희, 홍태욱, 이병복 공편으로 Selected Redings in Library Science를 출판 (1966)
- 1일 국립도서관에서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개교 (1946)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설립 (1949)
- 동양의과대학 도서관 설립 (1950)
- 육군기출연연구소 도서관 설립 (1950)
-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설립 (1952)
- 충주시립도서관 설립 (1953)
-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도서관 설립 (1954)
-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 설립 (1954)
- 한국은행 도서관 설립 (1954)
- 대전보육대학 도서관 설립 (1956)
- 서울시립농업대학 도서관 설립 (1956)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도서관 분관설립 (1956)
- 군산시립도서관 설립 (1956)
- 전남교육연구소 도서관 설립 (1957)
-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에 도서관학과 및 동 대학원에 석사과정 도서관학과를 설치 (1959)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서관 설립 (1959)
- 공포된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행기준령 제 7조에 도서관의 기준 수량이 명시됨 (1959)
- 경제기획원 도서관 설립 (1960)
- 전주교육대학 도서관 설립 (1960)
- 김두홍 지음. 「학교도서관의 스프레드뉴얼」 (한국 학교 도서관 실무시리즈 제 1집)과 「학교도서관의 버티컬파일」 (한국 학교도서관 실무시리즈 제 8집)을 한국도서관 교육연구회에서 출판 (1965)
- 2일 연세대학교 부설 학교도서관학당에서 평일에 수업하든 고급 사서과정을 토요일에만 개강기로 결정함. (1960)
- 3일 카톨릭의과대학 도서관 설립 (1957)
- 6일 제주대학 부속 도서관 개관 (1955)
- 부산시 교육발전위원회 도서관분과위원회를 결성 (1963)
- 8일 충남대학교 부속도서관 설립
- 10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준공 기념으로 11일까지 「성대교직원 소장품종합전시회」를 개최 (1959)
- 한국일보사에 리빙우기념 신문도서관 설립(1964)
-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목록규칙 수정판」발행(1966)
- 11일 경기도지구도서관협의회 및 경기도 교육연구소 공동주 (30페이지에 계속)